

한글 정보 처리의 연구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의 검토*

이 광 오†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한글 정보 처리의 연구와 관련된 문제적 상황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표음주의에 대한 집착과 편향이 한글 정보 처리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글 전용이 가져온 문제들을 지적하고 한자어에 있어서의 글자-형태소 대응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인지심리학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긴급한 당면 과제 중의 하나로서 남북한 어문 규정의 통일이라는 문제에 주목하고, 독서의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통일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외국어의 표기, 외국어와의 비교 연구 등 국제화 시대에 한글 정보 처리의 연구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단어인지, 한자어, 남북한어문규정, 한글맞춤법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 인지 및 생물 심리학회 겨울학술대회에서 “우리는 한글을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한 것임.

† 교신저자 : 이광오,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
Tel : 053-810-2235, E-mail : yiko@yu.ac.kr

한글과 한국어는 한국인에게 특별한 문자이며 특별한 언어다. 모어와 모어 문자만큼 인간의 심리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것도 없겠지만,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는 비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로막고, 한글과 한국어 연구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이를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본 논문의 주장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많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비판과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과 논쟁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서 한글 정보 처리의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실한 오해

한글과 한국어만큼 한국인의 자부심에 기여하는 것도 드물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종교를 불문하고,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한글과 한국어는 불가침에 가까운 어떤 것으로 한국인의 뇌리에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현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과학자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거나,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어렵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비성찰적인지를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많은 한국인들 - 과학자들도 포함하여 - 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어 1446년에 반포된, 이 세상에 나온 지 563년밖에 안된, 세상의 수많은 문자 중 하나다. 이에 비해서 한국어는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한민족에 의해 사용된 언어다. 한국어를 한글로 기록한 역사는 겨우 563년에 불과하다. 한글이 없이 한국어가 존재했던 기간이 훨씬 더 길다. 한국어는 한글 이외의 문자로도 표기 가능하며, 한글이 어떤 이유로 없어지더라도 한국어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한글은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의 표기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이 분명하나 한국어는 세종대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분명한 한글과 한국어의 구분을 수많은 한국인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표음문자의 신화

한글과 한국어를 구분하고 나면, 한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만든 원리가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글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이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한글 창제는, 소리가 나는 원리와 소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탁월한 관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음운 자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15세기에 그와 같은 언어학적 성취를 이룩한 문명은 없다. Sampson(1985)은 한글을 자질문자 또는 자질 표기 체계(featural writing system)라고 부르는데, 자질문자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자 제작의 원리가 이렇듯 체계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우수한 문자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문자는 기록을 위한 수단이지만 독서를 위한 매체라는 사실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글은 과연 독서의 관점에서도 우수한 문자일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물음은 아직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글은 로마자처럼 음소를 단위로 하는 문자이고 그래서 표음문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표음문자라는 명칭은 한글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문자가 사실은 표음문자이기 때문이다. 문자는 원래 소리 내어 읽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표음의 수준이 다를 뿐이다. 로마자는 음소의 수준에서 표음하고, 카나는 음절의 수준에서 표음하며, 한자는 단어의 수준에서 표음한다. 예를 들면, 한자 ‘日’은 항상 /리/라는 발음을 표시한다. 물론, 한자는 발음과 함께 의미도 나타내는데 이것은 한자가 가진 장점이다. 한글이나 로마자는 음소 수준의 표음만 가능하고 의미는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한글은 표음문자라고 하기보다는 음소문자(또는 자모문자, 음운문자)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음소문자도 의미 전달의 용이성을 위하여 표음의 기능, 즉 발음을 회생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가 그런 대표적 경우이고 한글도 마찬가지다. 세종대왕이 훈민

정음 반포시에 생각하고 있던 표기법은 철저한 발음주의였다. 즉, 발음나는 그대로 적는 것이 훈민정음 창제시의 표기법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음나는 그대로 적는 것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언중들은 점차 자발적으로 형태를 밝혀 적는 쪽으로 나아갔다. 조선조 말기의 주시경에 의한 한글 표기법은 그런 흐름의 정점에 서 있다. 오늘날의 한글 맞춤법은 형태주의와 발음주의가 타협한 결과이다.

표음심도의 문제

‘표음심도(orthographic depth)’는 단어 인지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보통 중국어는 표음심도가 깊고 그래서 음운경로를 통한 어휘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어는 표음심도가 과연 깊은가? 표음심도는 표기와 발음이 대응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영어의 표음심도가 깊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 표기가 여러 개의 발음에 대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pint*는 /파인트/라는 발음을 가질 수도 /핀트/라는 발음을 가질 수도 있다(올바른 발음은 /파인트/다). 중국어의 경우, 만약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개의 발음에 대응되는 일이 대단히 많다면 중국어를 표음심도가 깊은 언어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실제로는 영어나 한국어보다 중국어에서 글자-발음 대응의 모호함이 훨씬 적다. 한자 한 글자는 대부분 하나의 음절과 대응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거북이’를 의미하는 한자 ‘龜’는 발음이 /귀/, /구/, /균/ 등 여러 개다). ‘표음심도’의 개념은

자모문자를 쓰는 언어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한글 표기는 표음심도가 얇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생성 가능한 발음이 두 개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건’의 발음은 /수건/일 수도 /수건/일 수도 있으며, ‘사건’의 발음은 /사건/일 수도 /사건/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올바른 발음인지는 어휘 수준의 처리를 거쳐야 알 수 있다. 경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의 음변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단어들은 잠재적으로 글자-발음 대응이 모호하며, 이러한 단어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글은 표음문자이고 표음의 정확성이 완벽에 가깝다는 믿음은 한글 표기의 표음 심도가 실제로 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 표음심도라는 개념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표기체계에 대해서 글자-발음의 대응관계는 본질적으로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자는 제한된 수의 분리 체계이고 소리는 무한수의 연속 체계이기 때문이다. 문자와 소리는 서로 다른 특성의 체계이기 때문에 문자로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분절음을 표현하는 문자 체계는 거의 없다. 한국어의 경우, 장단음의 구별, 성조 등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각적 입력에만 의존하여 계산되는 음운정보는 모호하거나 불충분하며, 이런 식의 상향적 음운처리에 의해서 구동되는 단어 인지 체계는 본질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글오로지쓰기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중요한 언어정책 중 하나는 한글전용이다. 50년간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이 정책은 결국 성공하였다. 거의 모든 출판물에서 한자는 퇴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확한 어휘 의미의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학교와 학원에서 한자 교수가 성행하고 있다.

한글 전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였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검토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한글 전용이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어휘와 글자 수준에서의 중의성이며, 이것은 독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글 전용 정책으로 인하여 한자어도 모두 한글로 표기하게 되었다. 한글로 표기되는 한자어의 문제는 글자와 형태소의 대응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래 한자어를 구성하는 글자는 의미 단위인 형태소를 표상하며, 한자로 표기되는 한에 있어서는 글자와 형태소가 일대일의 대응을 이룬다. 그러나 한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글자와 형태소의 대응이 일대다가 되어 버린다. 글자-형태소 대응의 이러한 불투명성은 어휘 처리 과정에서 동음 형태소들 사이의 경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결국 신속한 단어 인지를 방해하게 된다.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다형태소 단어다. 다형태소 단어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단어 인지에서 형태소 처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다형태소 단어의 처리를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점화 효과(priming effect)를 관찰하는 것인데, 점화 효과는 선행하는 정보의 처리가 후속하는 정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만약에 먼저 제시되는 점화어 속의 형태소가, 나중에 제시되는 표적어 속에 다시 나타나면 표적어의 처리는 향상될 것이다. 이것을 형태소 점화 효과라고 한다. 영어권 연구의 대다수는 복합어 처리에서 유의미한 형태소 점화 효과를 한결같이 보고하고 있다(Feldman & Andjelkovic, 1992; Stolz & Feldman, 1995; Taft, 2003). 예를 들면, 먼저 제시되는 단어(점화어)가 *marked*이고 뒤에 제시되는 단어(표적어)가 *mark*인 경우 즉 형태소가 중복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점화어가 *market*이고 표적어가 *mark*인 경우에 비해서, 표적어인 *mark*의 처리가 우월하였다(Stolz & Feldman, 1995). 전자의 자극쌍 *marked-mark*는 형태소 중복 조건에 속하며, 후자의 자극쌍 *market-mark*는 표기 중복 조건에 속하는데, 표기 중복 조건에서는 무관한 자극쌍(예를 들어, *tack-mark*) 조건에 비해서 표적어인 *mark*의 처리가 열등하였다. 이것을 표기 억제 효과라고 부른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다형태소 단어가 심성어휘집에 형태소를 단위로 하여 표상되어 있고, 단어 인지 과정 중에 형태소 단위의 분리 처리가 일어남을 시사한다.

형태소 점화효과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의 한자 합성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Hirose, 1992; Joyce, 2004; Zhou, Marslen-Wilson, Taft, & Shu, 1999). Zhou, Marslen-Wilson, Taft 및 Shu(1999)는 2음절 한자 합성어를 사용한 연구에서, 자극 개시 간격

(SOA)에 상관없이 촉진적인 형태소 점화효과가 항상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보고된 형태소 점화 효과는 한자 합성어가 심성어휘집 내에 구성 형태소를 단위로 하여 표상되어 있고, 어휘 근접 과정에서 글자의 분리가 일어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한자 합성어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한국어 한자 합성어의 경우는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한국어의 한자 합성어에서는 형태소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표기가 중복되는 조건의 표기 억제 효과는 관찰되었다(이광오, 1999a, 1999b; 이광오, 이인선 1999; 이광오, 배성봉, 남기춘, 2005, 이광오, 정진갑, 배성봉, 2007).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많은 언어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형태소 점화 효과가 한국어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한국어 한자 합성어에서 형태소 점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설명은 표기체계(writing system)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한자를 주요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중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글자와 형태소는 완벽한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룬다. 예를 들어, ‘天國’이란 단어 중의 글자 ‘天’은 항상 {하늘}만을 의미한다. (이는 로마자를 표기 수단으로 하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한글 표기 한자어의 경우, 글자 ‘천’은 {川}, {天}, {千}, {泉}, {賤}, {遷} 등의 여러 개의 한자 형태소에 대응한다. 한국어에서 2음절 한자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은 최소 1개에서 최대 40개까지의 서로 다른 형태소와 대응한다.

한국어의 한자어를 연구할 때에는 단어의 사용빈도나 길이 등 일반적 특성 이외에, 글자 빈도, 글자 이웃의 수, 형태소 빈도, 형태소 이웃의 수, 글자-형태소 대응 등 5개의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이광오와 배성봉, 2009a, 2009b). ‘학교’라는 단어의 첫 글자 ‘학’을 예로 들어 5개의 변인을 설명하여 보자. 글자 빈도란 글자 ‘학’을 포함하는 모든 단어의 사용빈도의 합계를 가리킨다. 글자 이웃의 수란 ‘학교’, ‘학살’, ‘학질’ 등 글자 ‘학’을 포함하는 단어의 수를 가리킨다. 형태소 빈도는 {배울 학}의 의미로 글자 ‘학’을 포함하는 단어들의 사용빈도의 합계를 가리킨다. 형태소 이웃의 수는 ‘학생’, ‘학문’, ‘학당’ 등 {배울 학}의 의미로 사용된 글자 ‘학’을 포함하는 단어의 수를 가리킨다. 앞의 두 변인이 글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뒤의 둘은 형태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자-형태소 대응은 하나의 글자가 몇 개의 형태소와 대응하는가를 가리킨다. 이 변인은 글자의 차원과 형태소의 차원을 연결한다.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있어서 시각적 단어 인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은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글자(한자)=형태소이기 때문에 글자 빈도는 형태소 빈도와 동일하고 글자 이웃의 수는 형태소 이웃의 수와 동일하다. 글자-형태소 대응은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이 변인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 한국어와는 달리 두 개의 변인, 즉 글자빈도=형태소빈도, 글자 이웃=형태소 이웃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이광오와 배성봉(2009a, 2009b)은 위의 5개 변인 중 글자-형태소 대응의 투명성에 따른

한자 합성어의 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구성 글자의 형태소적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질수록—즉, 하나의 글자가 많은 수의 형태소와 대응할수록—단어 인지 수행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글 표기 한자 합성어에서 형태소 점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표기 억제 효과만 나타나는 이유가, 한글 전용 표기 체계의 특징 중 하나인 글자-형태소 간 대응의 불투명성 때문임을 시사한다.

남북한 어문 규정의 통일 문제

2007년 4월 27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공포되었다. 2013년까지 30만 어휘의 사전을 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문 규정의 남북간 차이이다. 남쪽은 1988년에 고시된 <한글맞춤법>을 따르고, 북쪽은 1966년에 공포된 <조선말 규범집>을 따른다. 두 어문 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둘다 그 뿌리는 1933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두고 있다.

어문 규정의 핵심은 표기법(orthography)이다. 표기법은 말소리를 문자로 적는 규칙으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표음주의와 형태주의가 그것이다. 표음주의는 발음을 충실하게 적는 방식이고, 형태주의는 의미 요소를 고정하여 적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꽃잎/을 소리 나는 대로 ‘꼰닙’으로 적는 것은 표음주의이고, 의미 요소를 고정하여 ‘꽃잎’으로 적는 것은 형태주의이다. 남과 북의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형태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나, 남쪽이 표음주

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얻어졌다. 또한, 사이시옷 표기의 친숙도가 중간 정도인 단어(조갯꾸)를 이용하여, 사이시옷의 유무가 단어 의미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사이시옷을 표기한 조건(조갯꾸)에서보다 사이시옷을 생략한 조건(조개꾸)에서 단어의 의미 이해가 더 빨랐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이시옷의 유지와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남북 어문 규정의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이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습의 용이성이다. 예를 들면, 두 음법칙의 존재는 남북 간 중요 쟁점 중 하나로서, 존속과 폐지 중 어느 쪽으로 결정되건, 결정에서 배제된 쪽의 사람들은 새로운 표기를 학습해야 한다. 그렇다면, 북쪽의 사람들이 두 음법칙이 적용된 남쪽식 표기를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그 반대가 더 효율적일까. 이광오와 배성봉(2008a)의 연구는 이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의 한 예인데, 북쪽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쪽과 북쪽에서의 인지심리학적 공동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어문 규정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검토가 매우 절실한 시점에 와 있으나 실상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지심리학적 접근은 남북의 표기법 중 어느 것이 더 독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표기법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제화 시대의 한글, 한국어, 심리학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짜아짜아족이 자신들의 언어인 짜아짜아어를 기록하는 공식 문자로서 한글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한글의 세계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쾌거라고 매체들은 보도하였다. 한술 더 떠서 훈민정음학회라는 단체는 2006년 KBS의 <우리말 겨루기>에서 우승하여 ‘한국어 달인’의 칭호를 받은 정모씨를 부톤섬에 보낼 현지 파견 교사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한국인들이 한글의 세계화에 열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한글 연구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음은 유감이다.

이러한 국제화 말고 한글은 창제 이후 많은 다른 문자나 언어와 접촉하여 왔다. 그 중 단연 으뜸은 한자다. 한글은 한자와는 굉장히 다른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것은 한국어가 중국어에서 받은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어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인 것이 그 단적인 예다. 한글 표기법의 특징 중 하나인 모아쓰기는 한자와의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자를 한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에서 제외하더라도 모아쓰기를 계속하는 한 한자로부터의 영향도 계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자를 버리고 로마자를 공식 문자로 선택한 베트남어는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어의 어휘 중 90% 이상이 한자어이며 따라서 음절 단위의 처리는 베트남어의 단어 인지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로마자를 이용한 표기에서는 음절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한자를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한글 표기와 로마자의 채용

으로 음절 단위까지 없어진 베트남어에서 단어 인지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한글 모아쓰기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표기법의 비교 연구 또한 흥미로운 과제다. 한글 표기법은 크게 남한식과 북한식이 있지만, 그밖에도 연변식, 일본식, 미주식 등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변이가 있으며, 이들 변이는 현지 언어와 표기체계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이들 다양한 표기법들을 비교하는 것은 한글, 한국어, 그리고 인간의 단어 인지 과정 일반의 이해에 기여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외국어와의 접촉이 빈번한 현대에는 외국어를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 정치적 또는 정서적 이유에 의해서 외국어의 표기법이 결정되는 일이 흔하지만 한글 및 한국어를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중국어 고유명사의 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모택동’과 ‘마오쩌둥’, ‘호금도’와 ‘후진타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는 친숙성이 중요하겠지만, 친숙성이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쪽이 더 학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화 시대에 한글과 관련된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인지심리학자들이 한글 및 한국어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참고문헌

이광오 (1999a). 한글 단어인지과정에서 형태소

처리과정. 실험 및 인지심리학회 연차대회 논문집, 35-42.

이광오 (1999b). 한자 합성어의 표상과 처리. 한국인지과학회 춘계 학술대회논문집: 인지과학의 현재, 과거, 미래, 73-79.

이광오 (2003). 단어인지 수행은 어중에 따라 다를까?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5, 479-498.

이광오, 배성봉 (2008a). 본음 복원 두음법칙 단어의 인지. 한국실험심리학회 겨울학술대회 논문집, 103-110.

이광오, 배성봉 (2008b). 사이시옷 단어의 인지에서 친숙성의 효과. 한국실험심리학회 2008년 겨울학술대회 논문집, 61-67.

이광오, 배성봉 (2009a). 한국어 음절의 표기빈도와 형태소빈도가 단어인지에 미치는 효과. 인지과학, 20, 309-333.

이광오, 배성봉 (2009b). 한국어 고유어의 인지에서 형태소 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및 생물, 21, 147-161.

이광오, 배성봉, 남기춘 (2005). 한자어의 처리에서 표기 중복의 효과. 한국 실험 및 인지심리학회 연차대회 논문집, 165-169.

이광오, 이인선 (1999). 한글단어의 인지과정에서 형태소 정보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1, 77-91.

이광오, 정진갑, 배성봉 (2007). 표기 체계와 시각적 단어 인지: 한자어의 인지에서 형태소의 표상과 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9, 313-327.

Feldman, L. B., & Andjelkovic, D. (1992). Morphological analysis in word recognition. In R. Frost, & L. Katz (Eds.), *Orthography*,

- phonology, morphology, and meaning*. Amsterdam: Elsevier.
- Hirose, H. (1992). An investigation of the recognition process for jukugo by use of priming paradigms.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63, 303-309. [Japanese Literature].
- Joyce, T. (2004). Modeling the Japanese mental lexicon: Morphological,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consideration. In S. P. Shohov (Ed.), *Advances in Psychology Research*, Vol. 31. Nova Science Publishers.
- Rastle, K., Davis, M., Marslen-Wilson, W., & Tyler, L. K. (2000). Morphological and semantic effects in visual word recognition: A time course study.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5, 507-538.
- Sampson, G. (1985).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introd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olz, J. A., & Feldman, L. B. (1995). The role of orthographic and semantic transparency of the base morpheme in morphological processing. In L. B. Feldman (Ed.), *Morphological Aspects of Language Processing*. LEA.
- Taft, M. (2003). Morphological representation as a correlation between form and meaning. In E. Assink, & D. Sandra (Eds.), *Reading complex words: Cross-language studies*. NewYork: Plenum.
- Zhou, X., Marslen-Wilson, W., Taft, M., & Shu, H. (1999). Morphology, orthography, and phonology in reading Chinese compound word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4, 525-565.

1 차원고접수 : 2010. 3. 15
최종게재결정 : 2010. 3. 28

Critiques of Research in Hangeul Information Processing

Kwangoh Yi

Departmen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Several problems in studying Hangeul information processing were discussed. First, the ideal of Hangeul orthography to perfectly transcribe Korean pronunciation has long been dominating among Korean scholars as well as Korean people, which can bias studies on Hangeul information processing. Seco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Hangeul-only system which insists on using Hangeul only and expelling Chinese characters from Korean texts were discussed. The author pointed out that more efforts to scrutinize the consequences of ambiguous Kulja-morpheme correspondence of Sino-Korean words resulting from the system should have been made. Third, unification of two Hangeul orthographies from North and South Korea is an urgent issue, which has to be solved for the year 2013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Unabridged and Unified Korean Dictionary). The unification issue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sychology of reading, and cognitive psychologis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Finally, other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transliteration of foreign words were also discussed from the standpoint of reading efficiency.

Key words : word recognition, Sino-Korean words, Korean orthography, Hangeul